

2013년 제3차 한국-우즈베키스탄 양자통계협력 회의 결과보고

2013. 10.

I. 한국-우즈베키스탄 양자통계협력 회의 개요	1
II. 회의 결과	5
1.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위원장 접견	5
2. 본회의	7
1) 양국의 통계시스템 소개	8
2) 가계동향조사의 e-다이어리 활용 소개	9
3) 가계금융 복지조사 소개	13
4)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소개	16
5) 사마라칸트 지방통계청 활동 소개	19
III. 참고사항	21
【참고 1】 한국-우즈베키스탄 양자 통계협력회의 현황	21
【참고 2】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조직도	22
【참고 3】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위원장	24
【참고 4】 우즈베키스탄 개황	25
【참고 5】 우즈베키스탄 역사 속 인물	27

I 한국-우즈베키스탄 양자 통계협력회의 개요

▣ **회의명** : 제3차 한국-우즈베키스탄 양자 통계협력회의

▣ **일 시** : 2013. 9. 15(일) ~ 9. 21(토) 5박 7일

▣ **장 소**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SCS*)

*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tatistics

▣ 대표단

	해 당 부 서	직 위	성 명
단장	사회통계국장	국장	김 광 섭
단원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사무관	이 진 석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주무관	유 달 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	주무관	원 남 희

※'13. 9. 18~20 추석연휴

▣ 대표단 주요활동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통한 고위급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통계협력 제고
- 양국의 국가통계시스템 비교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 사회통계분야에서 우리청의 발달된 전자조사시스템 및 최근 개발된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조사)를 소개
- 향후 통계협력 방향논의 및 양자 통계협력회의 정례화의 초석 마련

▣ 주요 의제

일 정	회 의 의 제	발표
9.17(화) ~ 9.18(수)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위원장 접견 ▶ 국가통계시스템 소개 및 질의 응답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 한국통계청	- - SCS KOSTAT KOSTAT
	▶ 가계동향조사의 e-다이어리 활용현황 소개 및 질의응답 ▶ 가계동향조사 현황 소개 및 질의 응답 ▶ 가계금융 복지조사(패널조사)소개 및 질의 응답 ▶ 사회통계의 수집 및 공표 소개 및 질의응답 ▶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소개 및 질의 응답 ▶ 타슈켄트 지방통계청장 접견	SCS KOSTAT SCS KOSTAT
9.19(목)	▶ 사마르칸트 지방통계청장 접견 ▶ 사마르칸트 지방통계청 활동소개 및 질의 응답	SCS

▣ 세부 일정

일시	일정	담당	
9.17 (화)	09:30-10:00	숙소 -> SCS 이동	Mr. Junaev Akronjonovich
	10:00-10:30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장 접견	Mr. Junaev Akronjonovich
	10:30-12:30	양국 국가통계시스템 소개 및 질의응답	Mr. Kim Kwangsup Elena Kiyatkina
	12:30-14:00	오찬 (통계교육연구원장 주재)	Mr. Sharipov Jamshid
	14:00-16:20	가계 동향 조사의 e-다이어리 활용현황	
		- (KOSTAT) 발표 및 질의응답 - (SCS) 업무소개	Ms. Yu Dalsoon Mr. Sharipov Jamshid
	16:20-16:30	휴식시간	
	16:30-17:50	가계금융 복지조사 발표 및 질의응답	Ms. Yu Dalsoon
	17:50~19:00	휴식 및 이동(SCS -> 숙소)	Mr. Junaev Akronjonovich
	19:00~21:00	환영만찬(우즈벡 통계위원회 부위원장)	Mr. Begalov Bakhodir
9.18 (수)	09:30-10:00	이동 (숙소 -> 우즈벡 통계청)	Mr. Junaev Akronjonovich
	10:00-11:00	사회통계의 작성 및 공표 소개	Ms. Kupa Tatyana Vladimirovna
	11:00-12:40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발표 및 질의응답	Mr. Lee Jinseok
	12:40-14:00	오찬 (KOSTAT 주재)	KOSTAT
	14:00-17:00	타슈켄트 지방통계청 견학	Mr. Sharipov Jamshid
	17:00-19:00	휴식 및 이동(SCS -> 숙소)	Mr. Junaev Akronjonovich
	19:00-21:00	환영만찬 (타슈켄트지방통계청장 주재)	

일시	일정	담당	
9.19 (목)	06:50-07:30	숙소 -> 타슈켄트 기차역으로 이동	Mr. Sharipov Jamshid
	08:00-10:30	타슈켄트市(시) -> 사마르칸트市(시) 이동	Mr. Sharipov Jamshid
	10:30-11:00	숙소로 이동 및 체크인	Mr. Sharipov Jamshid
	11:00-11:30	숙소 -> 사마르칸트 지방통계청 이동	Mr. Sharipov Jamshid
	11:30-11:40	사마르칸트 지방통계청장 접견	Mr. Ardyev Sharov Azanovich
	11:40-13:00	사마르칸트 지방통계청 활동 소개 발표 및 질의응답	Samarkand Local Stats office
	13:00-14:30	오찬(사마르칸트 지방통계청장 주재)	Mr. Ardyev Sharov Azanovich
	14:30~15:00	사마르칸트 지방통계청 -> 숙소 이동	Mr. Sharipov Jamshid
	15:00-17:00	사마르칸트市(시) 문화유적지 관람	Mr. Sharipov Jamshid
	17:00~21:00	만찬(사마르칸트시 지방통계사무소장 주재)	
	9.20 (금)	10:00-10:30	숙소 체크아웃
10:30-13:00		사마르칸트 유적탐방	Mr. Sharipov Jamshid
13:00-14:00		오찬	
14:00-18:00		사마르칸트市(시) -> 타슈켄트 공항으로 이동	Mr. Sharipov Jamshid
21:00-		인천공항으로 출발 (KE 0942)	

II 회의 결과

1.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위원장 접견

- 일시 : '13. 9. 17(화) 10:00 - 10:30
- 장소 : SCS 통계 위원장실
- 참석자
 - KOSTAT : 김광섭 사회통계국장 외 3명
 - SCS : Turayev Botir 통계위원장, Begalov Bakhodir 부위원장, Sharipov Jamshid 생활수준·사회통계과장, Jumaev Akromjonovich 국제협력과 직원, 통역 등 5명

○ 환담 주요 요지

(대표단장)

-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의 후예가 많이 살고 있고 우리의 옛 선조가 많이 지나갔을 이곳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 이번에 발표하는 전자가계부를 이용한 가계조사에 대한 내용이 우즈베크의 통계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양국이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함

(우즈베크 위원장)

- 우즈베크 통계위원회는 소련시대까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6개국과 MOU를 체결하였음. 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벨라루스에 이어 6번째 국가이며, 정기적으로 양자협력회의를 하는 나라는 한국뿐임. 이번 기회에 사회통계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함

- 사회통계에서 중요한 통계중 하나가 “가계조사”라고 생각함. 각국에서 여러 가지 조사방법을 활용하지만 한국의 “가계부”를 활용한 방법을 배우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임. 특히, 종이가계부를 쓰고 있는 우즈베크가 한국의 발전된 IT를 토대로 한 “전자가계부”의 노하우를 배우기를 희망함

- 또한 우리는 한국에서 사전에 받은 PT자료를 직원모두에게 이미 공유하여 숙지토록 하였음.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귀찮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으며, 이번 양자통계협력이 잘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역사적인 유적이 많은 사마르칸트에서도 사무소와 지역통계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얻고 우즈베크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기를 바람

(기념품 전달)

- (한국)측우기, (우즈베크)사마르칸트 역사화보 책자*

2. 본 회의

■ 회의개요

- 일시 : 2013. 9. 17(화)~ 9. 20(수)
- 장소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사마르칸트 지방통계청

○ 회의 진행방식

- 안전별 담당자 발표 및 질의 응답

○ 회의 순서

- 양국의 국가통계시스템 소개
- 가계 동향조사의 e-다이어리 활용현황 소개(KOSTAT)
- 가계 동향조사 시스템 소개(SCS)
- 가계금융 복지조사 소개(KOSTAT)
- 사회통계의 작성 및 공표 소개(SCS)
-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소개(KOSTAT)
- 사마르칸트 지방통계청 활동 소개(SCS)

○ 회의언어 : 한-우즈베크어 및 러시아어 순차통역 (통역 2명)

회의 1 양국의 통계시스템 소개

- 일시 : '13. 9. 17(화) 10:30 - 12:30

- 장소 : SCS 회의실

○ 발표자 :

- KOSTAT : 김광섭 사회국장
- SCS : 통계조직 및 방법국장(Elena Kiyatkina)

○ 참석자

- KOSTAT : 김광섭 사회통계국장 외 3명
- SCS : 인구노동통계국장(Jumayev Alimardon Akramjonovich)외 10명

○ 회의록

- 발표자료 (별도첨부)

- 질의 응답

Q) 한국 통계청장은 다른 분야(금융부 등) 업무도 담당 하는지?

A) 통계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때문에 다른 부처에 소속되는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계에 관련되는 것만 전담하고 있다

Q) 한국 통계청 직원들 중 몇 명이 직접 조사업무를 하는지?

A) 지방청 인력(1,487명+무기계약직근로자 826명) 중 90%가 조사에 전담한다고 볼 수 있다

Q) 조사원들은 가계조사에서 한달동안 방문하는 가구는?

A) 한달에 8,700가구를 방문한다

- 질의 응답

- Q) 2013년 예산 중 인건비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인지?
A) 전체 예산(222\$) 중 50% 사업비이며, 50%가 인건비에 해당된다
- Q) 2010년 e-Census에서 e-census 응답률이 높는데,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IT인프라가 잘되어 있는가? 또 정확도는 어느정도라고 평가하는가?
A) 한국 같은 경우는 IT인프라가 잘 보급 되어있고, 조건이 안된 경우라도 마을의 정보화센터가 있어 마을 이장 및 동장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참고로, 농촌인구가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도시의 아파트등 집단거주지역의 인터넷응답률이 높았다. 정확도에 있어서는 개인별 식별ID 및 패스워드 전달시 정확히만 전달되면 입력시 자동으로 에디팅이 되면서 오류를 검색하기 때문에 종이로 하는것 보다 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

회의 2 가계동향조사의 e-다이어리 활용 소개

- 일 시 : '13. 9. 17(화) 14:00 - 16:20
- 장 소 : SCS 회의실
- 발표자 :
 - KOSTAT : 복지통계과 유달순 주무관
 - SCS : 생활수준·사회통계과장(Sharipov Jamshid)
- 참석자
 - KOSTAT : 김광섭 사회통계국장 외 3명
 - SCS : 인구노동통계국장(Jumayev Alimardon Akramjonovich)외 10명
- 회의록
 - 발표자료 (별도첨부)

- 질의 응답

- Q) 계좌등록 및 카드등록, 마트거래내역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사전 가입은 해야한다고 했는데 해당 사이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시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지?
A)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식별번호, 성명, 성별, 주소 등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이 가능
- Q) 전자가계부의 응답자 대상 선정은 안하는지, 전자가계부는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지?
A) 응답자 선정은 하며, 전자가계부 조사에 응하고자 하면 관련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 가입을 해야 함. 한국은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인터넷 뱅킹을 위해서는 관련 은행에 가입을 해야 함. 이와 같이 가계동향조사의 8,700가구 중 전자가계부를 하고자 하면 같은 방법으로 해당 은행사이트에 가입하면 되며,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계좌정보에 대해서 전자가계부에 넘어와 조회할 수 있게 됨. 인터넷 뱅킹은 누구나 신청가능 함.
- Q) 조사원들은 가계조사에서 한달동안 방문하는 가구는?
A) 한달에 8,700가구를 방문한다
- Q) ID와 패스워드는 통계청에서 부여하는지 ?
A) 인터넷뱅킹 개설은행 홈페이지에서 결정함
- Q) 응답자 대상 선정시 가구의 특징은 ?
A) 표본설계때 시도, 가구주 성별, 주택, 직업,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 함
- Q) 선정된 응답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
A) 그렇다. 선정된 가구에서 조사에 응해준다고 해야 함
- Q) 응답자 포상금은 있는지 ?
A) 기본 가구당 매달 종이조사표는 2만원, 전자가계부는 4만원, 특히 전자가계부 작성시 계좌등록을 하는 경우는 5만원 지급함

- 질의 응답

- Q)** 응답자 동의 없이 마트거래내역이나 은행에 등록된 계좌내역을 직접 통계청으로 자료제공이 가능한지?
- A)**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불가능하며, 전자가계부의 계좌조회 내용은 통계청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고 개인 PC에만 저장됨
- Q)** 대형마트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마트거래내역은 실제 어느 서버에 DB화 되는지 ?
- A)** 해당 마트서버에 자료가 축적되며, 홈페이지는 가입시 자료제공이용에 동의를 한후 마트에서 거래시 개인정보와 연계하여 결제시 실시간으로 통계청 전자가계부 계좌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함
- Q)** 대형마트나 은행 등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
- A)** 당연히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를 보유함
- Q)** 명품은 어떻게 입력하는지, 항목 분류를 하는지 ?
- A)** 명품으로 내용 입력 후 검색하면 유명한 명품이 아니면 항목이 검색되지 않음. 브랜드명으로 검색하고 싶을 때는 200건 이상 누적되어야 상품명 검색으로 항목 분류가 가능함, 가계동향조사는 항목분류별 지출을 집계하는 것이 주목적임
- Q)** 전자가계부의 소득입력을 매월하는 것이 좋은지?
- A)**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는 반복소득을 등록하고, 자영업자는 직접 입력하면 됨
- Q)** 가계동향조사는 매월조사하고 분기와 연간으로 공표하는데 3개월 조사해서 한꺼번에 공표하는 것인지?
- A)** 예. 연간으로 하는 것은 농가를 합쳐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5월에 공표함

- 질의 응답

- Q)** 기타소득 분류가 있는지?
- A)** 예. 비경상소득은 예측하지 못한 수입임
- Q)** 응답자 대상자 선정방법은?
- A)**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0가구를 1조사구로 만들어, 조사구 특성(아파트, 농가 등)별 가구주 연령, 주택유형 크기, 산업 등의 기준에 따라 조사구 및 가구 추출, 조사에 적절한 가구인지 판단 후 방문함
- Q)** 연동표본시스템은 한달마다 바뀌는 건지?
- A)** 연동시스템을 구축할 당시에 지정한 순서에 따라 매달 교체함. 이번달에는 어느 가구가 조사되고, 어느 가구가 나갈지, 들어올지가 정해져 있음. 그 교체 규모가 한달에 1/36씩만 나가고 들어감이 미리 정해져 있음. 한 가구가 3년동안 응답하는데 매달 순차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임
- Q)**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비경상지출은? 한꺼번에 비용이 드는데 전자가계부에 입력하는지?
- A)** 장례식비용이나 결혼식 비용은 기타 지출항목에 넣고, 식대나 전자제품 구입 등 비용을 항목별 구분이 가능하면 해당금액을 입력하면 됨
- Q)** 아파트 구입은 지출인가?
- A)** 지출이 아닌 자산 개념임
- Q)** 가구원 소득과 지출을 가구 전체로 통합하는지?
- A)** 전자가계부는 개별 가구원별로 입력하되, DB에서 한 가구임이 파악 가능하므로 가구원 자료를 가구로 취합함
- Q)** 가구원별로 구별할 수 없는 지출은 어떻게 하는지,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입력 가능한지?
- A)** 구별할 수 없는 지출은 가구주의 지출로 입력하며, 가구의 대표자나 가구주가 일괄입력이 가능함

회의 3 | 가계금융 복지조사 소개

- 일 시 : '13. 9. 17(화) 16:30 - 17:50
- 장 소 : SCS 회의실
- 발표자 :
 - KOSTAT : 복지통계과 유달순 주무관
- 참석자
 - KOSTAT : 김광섭 사회통계국장 외 3명
 - SCS : 인구노동통계국장(Jumayev Alimardon Akramjonovich)외 10명

○ 회의록

- 발표자료 (별도첨부)

- 질의 응답

- Q) 월세 비율은, 한국에 자기집을 갖지 않은 비율은 ?
A)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를 인용하여 설명함. 자기집(56.8%), 전세(21.5%), 월세(16.7%)로 조사되었음
- Q) 보고서 수치상으로 44% 정도가 자기집이 없는데 이유는?
A) 전세로 살지만 집이 여러채 있을 수도 있어, 전수조사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 젊은 사람은 집값이 비싸서 소유하기가 어려움
- Q) 농가, 음식점/여관/하숙업 등을 경영하는 겸용주택 내의 가구 등은 포본에서 제외했는데 그 비율은?
A) 표본조사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입주형태 결과 중 기타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며 모집단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Q) 응답자 가구에 포상금 전달 방법은 계좌이체인지, 신용카드로 하는지?
A) 조사원이 마트사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직접 전달함

- 질의 응답

- Q) 응답자 가구는 포상금을 소득으로 잡을 텐데 세금을 납부하는지?
A) 통계청은 통계조사용 답례품 예산이 130억 정도를 지출합니다. 이중 70%는 상품권 형태로 나가고, 나머지는 일부 계좌이체와 응답자가 선호하는 현물을 제공합니다. 현재 포상금이 최대 5만원이 되지 않는 소액이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과도 무관함
- Q) 포상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하는지? 포상금 후원자가 있는지
A) 포상금 금액은 문항수, 난이도에 따라 다름. 금액은 예산에 따르며 예산국과 협의를 매년 함. 스폰서는 없음. 참고로 전수조사는 포상금을 주지 않고, 일부 대상을 뽑아서 하는 표본조사의 경우만 답례품을 줌
- Q) 상품권을 받을때는 서명을 받는지?
A) 예
- Q) 2만 가구를 목표로 2만 5천으로 추출하였다고 했는데, 응답률 77%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됨?
A) 가계금융조사의 불응률을 고려, 표본대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추출한 2만 5천가구를 모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77%의 응답률을 얻은 것임
- Q) 1차년도 77.0%에서 2차년 91.7%로 응답률이 올라갔는데 왜 그런지?
A) 전년도 응답한 가구, 즉 패널조사이므로 2차년도 응답률이 높음
- Q) 3차년도는 100%가 되는 것이 아닐지?
A)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의 탈락이 예상되며 패널조사 응답률은 보통 점점 낮아짐
- Q)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의 편리성이 높은 응답자 선정형식은 어떤 것인지 기준에 따라서 설정하는지?
A) 조사구 선정하여 랜덤하게 계통추출하여 부문별로 순서대로 선정됨. 표본이론에 맞춰 추출하였음
- Q) 표본 선정시 어느 정도 가구 규모가 되어 전국적 결과공표가 가능한지 ?
A) 전국단위 공표를 위해 기존 조사는 표본규모가 1만 가구였고, 지역별 공표를 위해서 전국에 2만 가구로 표본을 확대함

- 질의 응답

- Q) 빈곤율 작성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집없는 사람 개념인지?
A) 균등화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계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Q) 국가 빈곤율 작성시 즉 한달 소득 몇달러 이하 등의 기준을 어떻게 결정내리는지?
A) 한국의 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즉 절대빈곤율을 정하며, 통계청 조사를 참고함. 빈곤자 정부지원을 위해 기준을 결정해야 하므로 지원 기관에서 결정함
- Q) 면접조사원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A) 경험있는 조사원이므로 전달교육(1일)을 직접하며, 사이버 지침서도 제공함
- Q) 조사원 채용시 학력은, 대학교를 나와야 하는지?
A) 학력차별 때문에 제한이 없으며 오히려 조사경험이 인센티브가 됨, 보통은 40대 주부들이 많음
- Q) 공표되고 있는 통계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책자형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지?
A) pdf 형식의 e-book이 제공되며, 통계청 영문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공표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보고서 영문요약분도 볼 수 있음.

회의 4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소개

- 일 시 : '13. 9. 18(수) 11:00 - 12:40
- 장 소 : SCS 회의실
- 발표자 :
 - KOSTAT : 고용통계과 이진석 사무관
- 참석자 :
 - KOSTAT : 김광섭 사회통계국장 외 3명
 - SCS : 인구노동통계국장(Jumayev Alimardon Akramjonovich)외 10명

○ 회의록

- 발표자료 (별도첨부)
- 질의 응답

- Q)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법인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하는지?
A)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구에 거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취업상태 등을 묻는 조사로써 법인을 통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음
- Q) 노동부도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A) 노동부도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통계승인을 받아야 함
- Q) 한국에서 퇴직하는 경우는 평균 몇 살인지?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조사하는지?
A)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구분했을 때, 공공부분은 통상 60세이며, 민간부분은 정년퇴직 연령이 따로 없음. 일반적으로 50~55세 정도이며, 경찰조사에서 굳이 정년을 고려해서 조사할 필요는 없음. 70세이상도 취업자나 실업자가 될 수 있음

- 질의 응답

- Q) 국제경험에 의하면 취업률은 공식취업률과 비공식취업률로 나누어지는데 공식취업률은 정부기관이 승인을 해준 법인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비공식취업률은 세금을 안내고 하루만 일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말할.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의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
- A) 노동력조사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있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조사가 있음. 지금 질문은 기업체대상 조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가 됨. 이러한 조사는 노동부에서 주로 실시하는데 주로 임금, 근로시간 등을 조사하며, 우리조사는 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가구조사로 모두 공식자료임.
- 취업자에 대해서 Typical 과 Atypical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Typical 한 부분에서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통계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건설현장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자, 길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세금 납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가구조사에서 조사가 되어 공식통계로 작성됨
- Q) 경찰인구 2,500만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것인지?
- A) 이것은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표본 32,000가구를 조사직원이 직접 방문조사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함
- Q) 가구대상 선정은 통계청이 직접 하는지 다른 부처에서 하는지?
- A) 통계청이 직접 표본추출이론에 의해 가구를 선정함
- Q) 주요지표 정의를 보면, 취업자에 대해서 1시간이상이라도 일한 사람인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 A) 조사대상기간은 1주일로서 지난 1주간 1시간이상 일한 사람이 취업자가 됨
- Q)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 A) 비경인구는 학생, 가정주부 등 실업자의 세가지조건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비경인구가 되며, 취업자는 지난 1주간 한시간이라도 수입있는 일을 하면 취업자가 됨

- 질의 응답

- Q) 1995년과 2010년사이에 1인가구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 A) 고령화되면서 혼자사는 노인 단독가구가 많이 증가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직장문제로 인해 단독가구가 증가함. 맞벌이라도 각각 살면 단독가구가 될 수 있음
- Q) 글로벌화로 인해 외국인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노동이민을 허용하는지?
- A) 한국도 2004년부터 시행되고 2006년부터 본격화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어있음. 지금은 불법체류가 아닌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은 120만이 넘는데 다 관리되고 있음. 이 사람들도 경찰인구에 포함되어 조사되고 있음
- Q) 출국하고 해외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경찰에 포함되는지?
- A) 출국자에 대한 규모 등은 법무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3개월을 기준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회의 5 | 사마르칸트 지방통계청 활동 소개

- 일 시 : '13. 9. 19(목) 11:00 - 12:40
- 장 소 : 사마르칸트 지방통계청 회의실
- 발표자 : Samarkand Local Stats. office
- 참석자
 - KOSTAT : 김광섭 사회통계국장 외 3명
 - SCS : 사마르칸트 지방통계청장(Mr. Ardyev Starov Azanovich)의 직원들

○ 회의록

- 발표자료 (별도첨부)
- 질의 응답

Q) 통계위원회에서 지방사무소로의 조사지침이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통계위원회에서 14개 지방사무소 조사지표를 주고 각 지방에서도 소 지역에 지침을 주고있으며, 교육은 젊은직원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Q) 교육방법이 본부에서 직원이 내려가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본 위원회로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A) 한국에서와 같이 40%이상의 직원들을 타슈켄트 본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본부의 직원이 지방마다 내려와서 교육을 한다. 그리고 분야별(농업, 사회, 경제)로 30~40명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다

Q) 법인이나 개인들의 조사거부는 얼마나 있으며, 대처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A)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법인조사가 2년밖에 안되어 있어서, 법인의 조사거부시 보상은 주지 않으며 다른 기업으로 대체하며, 개인들의 조사거부시는 보상금을 주며 응답을 독려한다. 앞으로 법인들의 응답거부시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 질의 응답

Q) 한국에는 지정통계 조사시 불응을 하면 패널티를 물을 수 있게 법에 규정되어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어떤가?

A)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보고통계서는 제시간에 제출을 안 하거나 잘못된 통계를 제출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예를 들어 2013년 현재 48,000건 중 212건의 벌금처리를 하고 있다. 이 숫자는 제출기간이 연간1~2회 제출이기 때문에 불응율이 낮다

Q) 한국에서 가구조사를 할 때 전국가구에서 몇 %를 응답자 가구로 계산하는지 ?

A) 한국은 1,450만 가구 중 대상가구는 9,900가구가 되며, 실제 조사가구는 매월 8,700 가구이다.

III 참고 사항

참고 1 한국-우즈베키스탄 양자회의 현황

2011년 제1차 양자 통계협력회의

개최국 및 시기	한국 대표단	회의주제 및 통계교류 분야
'11.8.22~8.27	통계청 차장 외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시스템 · 통계의 시각화 · 등록 센서스 · 자본 스톡 측정 방법 · 통계의 작성 및 방법의 표준화

※ 대표단 : 차장, 정보화기획과장 서찬일,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채식사무관

2012년 제2차 양자 통계협력회의

개최국 및 시기	우즈베크 대표단	회의주제 및 통계교류 분야
한국 '12.6.18~6.22	Ms. Elena Kiyatkina 통계조사·방법국장 외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조정 및 통계전략기획 · 품질관리제도 · 웹을 이용한 자료수집시스템 · 통계분야에서의 인터넷 활용 · 지방통계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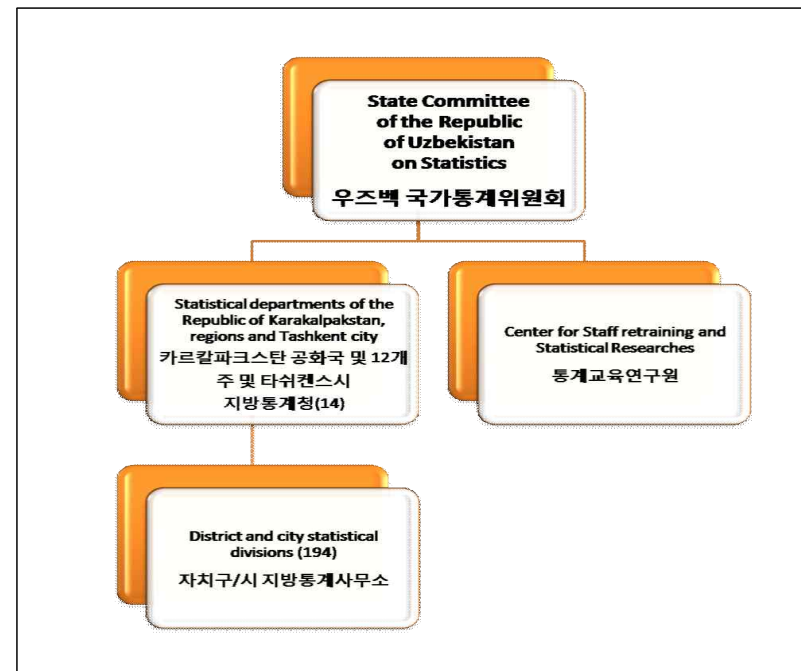
※ 대표단 : 통계조직 및 방법국장 (Ms. Elena Kiyatkina), ICT국장 (Mr. Konstantin Kan)

2013년 제3차 양자 통계협력회의

개최국 및 시기	한국 대표단	회의주제 및 통계교류 분야
우즈베키스탄 '13.9.15~9.21	사회통계국장 외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의 국가통계시스템 · 사회통계의 작성 및 공표(SCS) · 가계동향조사에서의 e-다이어리 활용 · 가계금융 복지조사 소개 · 인터넷을 활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소개

참고 2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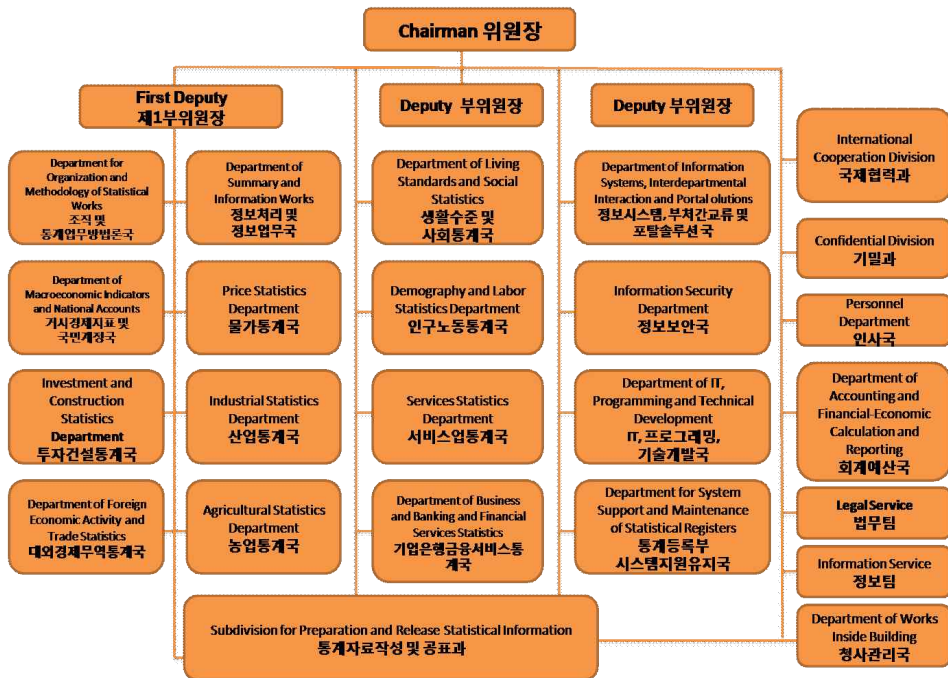
□ 조직도



*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산하 시 지방통계청 (14개), 통계교육연구원(교육원 + 연구원) 시 지방통계청 산하 지방통계사무소 (194개)

참고 3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위원장

□ 내부 조직도



※ 내부 조직도 : 조직 및 통계업무방법론국 외 18국, 국제협력과 외 2과
법무팀의 1팀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는 통계생산과 배포를 담당하는 정부집행기구임
(장관급)

□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장

(Chairman of GOSKOMSTA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이 름 : Turayev Botir Eshboevich
- 생년월일 : 1966년
- 학 력 : 1989 Tashkent Institute of National Economy (통계학)

□ 주요경력

- 2010. 2. 9 ~ 우즈벡 국가통계위원회(Goskomstat) 위원장
- 2006. 6 ~ 우즈벡 국가통계위원회 제1 부위원장
- 2004 ~ 2006 Dzhizak region 부지사
- 1993 ~ 2004 우즈벡 중앙은행(국·과장, 선임연구원, Dzhizak사무소장 등)
- 1989 ~ 1993 Tashkent Institute of National Economy 통계학 강사

□ 참고 사항

-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 통계생산과 배포를 담당하는 정부집행기구(장관급)

참고 4 우즈베키스탄 개황

□ 일반현황

- 수도 : 타슈켄트(Tashkent)
- 행정구역 : 1개 특별시, 12개 주(州), 1개 자치공화국으로 구성
- 기후 : 고온 건조한 사막성 기후
- 민족 : 우즈베크인(84.0%), 러시아인(2.8%), 고려인(0.8%), 기타(12.4%)
- 언어 : 우즈베크어(공용어), 러시아어(통용)
 - ※ 자국어 우대정책으로 정부기관에서 우즈베크어 사용
- 종교 : 수니파 이슬람교(70%), 시아파 이슬람교(20%), 그리스 정교(9%)
- 교민 : 약 2,000명

□ 주요 지표현황 (2013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분야	한국
3,007	인구(만명)	5,022
7.1	경제성장률(%)	2.0
564	GDP(억불)	11,292
1	실업률(%)	3.1
10.9	소비자 물가상승률(%)	1.3

* 우즈베키스탄 자료 : IMF, 무역관 보유자료(2013.6월 기준 최신 정보)

- 무역규모 : 262.7억불('12년)
 - 수출 : 142.5억불, - 수입 : 120.2억불
- 자원보유현황
 - 에너지 : 석탄(4,000만톤, 세계9위), 금(5,300톤, 세계5위), 몰리브덴(60,000톤 세계12위, 우라늄(65,000톤, 세계10위)
 - 원유·가스 : 원유(6억 배럴), 가스(1,68조 m³, 세계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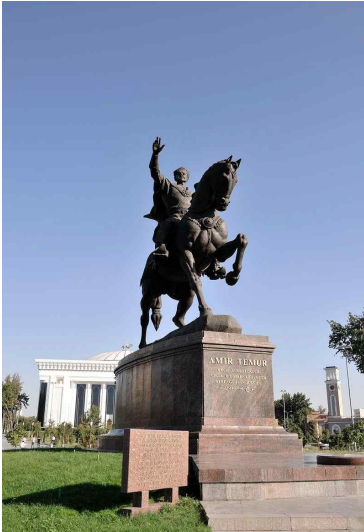
□ 우리나라와의 관계

- 92년 1월 국교 수립 이후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11차례 정상회담 개최
- 주우 대사관 '93.12월 개설
 - 공관장 : 이욱헌 대사 ('13. 6월 부임)
 -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개설 : '95.12월
 - 겸임국 : 타지키스탄
- 수출입 현황 및 주요 품목 ('10년 : 14.6억불)
 - 수출 : 14.38억불(자동차부품, 원동기 등)
 - 수입 : 0.22억불(면사, 천연섬유사, 질소비료)
- 투자동향 : 6억불('13. 3월 누계)
 - 아시아나항공, 동서기연, 세명금속공업 등 진출 190개 기업,
 - 총 투자액 : 6억 1,421만달러
- 고려인동포 : 약 17.5만명(CIS내 최다)

참고 5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속 인물

□ 아미르 티무르

"단한 중앙아시아를 열고 세계를 소통시키다"



14세기 중앙아시아에 원정만 떠나는 군대가 있었다. 이 군대는 여름에는 영상 40도 이상의 불타는 사막을 가로질렀으며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을 패고 눈이 행군을 가로막는 척박한 황무지와 가파른 계곡들을 횡단하였다. 이군대가 수행한 원정의 전체 거리를 합하면 지구둘레에 해당하는 40,077km에 육박했다. 이 군대는 항상 한사람의 지휘자에 의해서만 움직였다. 그는 유목민의 핏줄을 타고났지만 3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무슬림이었다.

게다가 그는 젊은 시절에 전투에서 오른팔과 오른 쪽 다리에 화살을 맞아 절름발이가 되었던 장애인이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누구도 그를 대신해 원정대를 지휘한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선두에

서서 군대를 통솔하였으며, 적장과의 일대일 결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33세에 처음으로 원정을 떠났으며, 67세에 떠난 원정길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는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로 형성된 군대를 훈련시키고 통솔하여 국제적 170일 연전연승의 신화를 남겼는데 그간의 전투에서 죽었던 적의 수는 대략 1천7백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¹⁾

그는 원정을 떠나던 길위에서 34년의 행군을 마감하였다. 그가 죽은 이후로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한 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위대한 무역로인 실크로드도 그의 죽음과 함께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원정을 단행한 것은 유라시아대륙을 자신의 정복지로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대륙이 가지는 가치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1) 이 때문에 아미르 티무르를 최대의 살인마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 칭기즈칸, 나폴레옹 등과 같이 한시대를 풍미한 역사적인 인물도 그들이 가지는 파괴자로서의 측면은 언제나 있어왔으므로 아미르 티무르만이 왜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에서) 저평가되고 있는가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는 이들도 있음

< 실크로드와 장건의 개척로 >



14세기에 폐허가 된 중앙아시아에서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를 소통시키고 화합으로 이끌어 국가를 세우고 유라시아 대륙의 가치를 높였던 이 군대의 지휘자는 바로 아미르 티무르(1336~1405)³⁾였다.

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약간의 세계사적 지식이 필요한데 일단 먼저 십자군전쟁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듯 싶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 사이에 서유럽의 그리스도교도들이 성지 팔레스티나와 성도 예루살렘을 이슬람교도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전후 8회에 걸쳐 감행한 대원정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 당시 전쟁에 참가한 기사들이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원정을 십자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십자군의 태동이 종교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고 또한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교도와 이슬람교도와 배타적 싸움이라는 점에서도 종교전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것을 간단히 종교운동이라고 성격지을 수는 없는 복합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봉건영주와 하급 기사들은 새로운 영토지배의 야망에서, 상인들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망에서, 또한 농민들은 봉건사회의 중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희망에서 저마다 원정에 가담하였다.

2) 장건(?~B.C. 114)은 한나라 무제때 중국과 중앙아시아 여러지역간 외교적, 상업적 교류의 물꼬를 튼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

3) 아미르 티무르는 몽골의 몰락한 귀족가문에서 출생하였으나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중앙아시아에 정착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한 투르크인들의 영향을 받았음. 그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위대한 몽골제국의 후손이자 투르크화 된 몽골인"

그 밖에 여기에는 호기심·모험심·약탈욕구 등 잡다한 동기와 신앙적 광기와 합쳐져 있었다. 대체로 십자군시대의 서유럽은 봉건사회의 기초가 다져지고 상업과 도시의 발달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서 노르만인의 남(南)이탈리아 및 시칠리아 정복, 에스파냐의 국토회복운동, 동부 독일의 대식민활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변 세계와의 경계를 전진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십자군도 정치적·식민적 운동의 일환이 될 수밖에 없었고, 종교는 이 운동을 성화(聖化)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396년 10만의 유럽 십자군을 무찌르고 서유럽에 대항해서 이교도의 성지 비잔티움을 향해 나가려고 했던 오스만제국⁴⁾의 술탄 바예지드(제4대, 재위기간 1389~1402)와 아미르 티무르는 숙명의 “앙카라 전투”⁵⁾를 벌이게 되고 서유럽 관심은 온통 이 전투에 쏠리게 되는데 만약 아미르 티무르가 패하게 되면 바예지드의 이슬람군대에게 기독교 서유럽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군대의 규모는 서로 엇비슷했다. 비록 현장 목격자의 기록에 따르면 티무르의 막사에 백만의 군세가 모여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약 20만 정도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예지드의 군대규모도 티무르의 군세와 대략 비슷한 숫자였을 것이다. 바예지드의 군세는 주로 보병들과 세르비아 군주 스테판 라자레빅이 지휘하는 세르비아 중장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티무르의 군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병이었으며 전투용 코끼리에 탑승한 소수의 인도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투는 오스만 군의 거대한 규모의 공격과 이에 대한 티무르 군의 궁기병대가 쏘아올

4) 오스만 투르크제국(1299~1922)은 다민족, 다종교 국가로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3개 대륙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으며, 16~17세기에 전성기를 누렸다. 수도는 오늘날 이스탄불로 알려진 콘스탄티노폴이었으며, 투르크계의 오스만 왕조가 제국을 통치하였다. 전성기 제국의 영토는 동서로는 카스피해와 페르시아만 연안에서부터 대서양 연안의 지브롤터 해협까지, 남북으로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유럽의 오스트리아 경계에 이르렀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동서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문화적으로도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문화가 융합된 다원적인 성격을 띠었다.

5) 이슬람이 다양한 종파로 분열되면서 종교의 본질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치우쳐 그 의미가 상실되어 가면서 종교본연의 자세를 찾자는 운동이 금욕과 수행을 중시하는 수피즘이다. 아미르 티무르가 통치하던 당시에 중앙아시아는 수피즘의 중심지였다. 아미르 티무르의 영적인 스승들 역시 대부분 수피즘을 신봉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혼란을 자행하고 있는 페르시아와 아랍의 이슬람통치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따라서 그는 페르시아와 아랍의 침략에 다음과 같은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슬람의 칼로 이슬람의 머리를 베리라”

린 화살의 파도로 시작되었다. 수천명이 죽고 많은 이들이 포위되었다. 전투도중, 양군에게 주된 수원이던 쿠북강이 티무르에 의해 수류의 흐름이 바뀌어 쿠북 마을 근처에 있는 수원지로 흐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오스만 군은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최후의 전투는 쿠북 계곡의 주된 지역인 카탈 언덕에서 일어났다. 목마르고 지친 오스만 군은 패배했고, 바예지드는 소수의 기병들과 함께 근처의 산으로 도망치려 하였다. 그러나 티무르는 산을 둘러싸고 수적으로 바예지드를 압도하여 곧 결국 그를 체포했다. 비록 수적으로 압도된 것도 있지만, 오스만 군은 바예지드를 홀로 남겨두고, 티무르 군에 참가한 타타르군과 아나톨리아 출신의 사파위들의 이탈로 인해 약화되었다.

유럽인들은 처음에는 티무르의 침략에 고무되었다. 그리고 티무르의 지원하에 제노바인들은 갈라타의 성벽에서 몽골의 군기를 걸었다고 한다. 그러나 몇 달 후 아나톨리아에서 오스만 세력을 티무르가 괴멸시키는 것을 보고, 다음 목표는 자신들이라는 공포가 유럽인들을 옥죄었다. 앙카라의 전투는 오스만 투르크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발칸의 정치적인 상황에 일시적인 영향을 끼쳤다.



티무르의 침략으로 인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공격은 연기되었고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는 새로운 위협에 저항하기 위해 발칸 땅에서부터 퇴각하였다. 이 사건은 바예지드 자신이 생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자유롭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를 내분으로 갈라지게 하였다. 바예지드의 네 아들의 내전의 결과로 대부분의 오스만 투르크는 유럽으로 달아났다. 오스만의 일시적인 약화는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과 오스만 제국의 최종적인 발칸 점령을 일시적으로 지연시켰다.

하지만 아미르 티무르는 앙카라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에 서유럽을 넘보지 않고 다시 중앙아시아로 떠났다. 그는 왜 유럽을 침략하지 않았을까?

그의 정복여정은 바로 실크로드의 소통을 위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유라시아대륙 전체의 통일을 이룩하여 과거 몽골제국이 건설한 하나의 유라시아를 꿈꾸는 것이었다. 아미르 티무르가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결정한 것은 이 도시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그가 일찍이 파악했기 때문이다.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의 중간기착지이자 유라시아의 허브였다. 이곳이 번창하면 중앙아시아 전체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으며 유라시아대륙 역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렸다. 반대로 이 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중앙아시아의 경제와 유라시아 대륙의 경제가 침체되었다.

사마르칸트 역사를 연구한 윌프리드 블러트는 자신의 저서인 『사마르칸트 가는 황금의 길』에서 아미르 티무르의 사마르칸트는 아시아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번영의 도시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마르칸트는 현대적 의미에서 물류의 허브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중세 최고의 도시였다.



또한 아미르 티무르가 직접 지휘하여 건축에 사용되는 벽돌, 문양, 규모까지 정해주었으며, 현재 이를 티무르양식이라고 부르는데 돔모양을 가진 이슬람 사원과 신학교는 푸른색 타일로 치장되어 지금도 그 찬란한 빛을 전해주고 있다.

이슬람 도시의 전형적인 구조는 사원, 신학교, 첩탐, 시장, 주거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미르 티무르는 여기에 다른 몇가지 요소를 추가하였는데, 첫째 정원을 건설하였으며, 둘째, 모든길이 시장으로 연결되도록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셋째, 사마르칸트 주변에 다수의 신도시를 건설하여 사마르칸트의 상업중심기능을 배후에서 지원하기위한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1653년에 완공된 세계 건축사에 길이 남는 인도 무굴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타지마할은 당시의 통치자였던 샤 자한(Shah Janhan)이 1629년에 세상을 떠난 왕후 뭉타즈 마할(Mumtax Mahal)을 추모하여 만든 무덤이다. 이 건축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마르칸트의 건축물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무굴제국을 건국한자가 바로 티무르제국의 후손인 바부르(Babur, 1482~1530)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타지마할의 건축기술이 어디에서 출발하였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마르칸트는 도시 자체가 14세기 세계를 모아놓은 박물관이었다. 아미르 티무르는 대륙을 지배하면서 당대의 첨단 과학기술, 희귀한 문헌들, 전문가 집단 등을 사마르칸트로 가지고 갔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존하는 최고권위의 코란 정본(오스만 코란)이다. 당초 3대 칼리파인 오스만시대(644~656)에 경전의 결정판이 완성되고 정본을 4부 필사해서 터키 이스탄불 등 4곳



에 보관하게 하였으며, 아미르 티무르가 이라크를 정복하면서 그곳 바스라에 보관된 것을 자신의 애첩을 위해 세운 비비하눔사원에 보관케 하였는데 지금도 사원 안뜰에는 이 정본을 전시했던 커다란 대리석 전시대가 남아있다.

그러나 아미르 티무르의 집권당시 실크로드 무역은 거의 침체되어있었으며 몽골제국의 칸국들이 잇달아 멸망하면서 생긴 각 지역 신흥국가들이 정치적 과도기를 맞이하느라 무역로에 대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오스만제국은 실크로드 무역을 원하는 서유럽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경제규모와 성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아미르 티무르는 페르시아, 중동, 인도, 러시아, 오스만제국 등을 정복하면서 그와 백성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위대한 실크로드를 복원시켰다. 그는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카라반 사라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호텔을 확충하였는데 카라반 사라이는 휴식의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상품 교류의 공간이자 상품 전시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였다. 낙타에 물건을 가득 싣고 호위병들을 붙여 긴장속에 지나가는 실크로드는 무겁고 무서운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짐을 가볍게 하고 주머니에 가득 돈만 넣어서 카라반 사라이를 찾으면 유라시아 전체를 살 수 있었다. 희귀한 물건과 알지 못했던 정보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미르 티무르는 속도를 제압하는 것이 정보라는 것을 알았다. 대륙에서는 무수한 민족과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해야만 대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정보의 힘에서 출발한다. 그는 사마르칸트를 건설하고 대륙의 모든 길이 이곳과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그곳을 대륙의 정보를 처리하는 허브로 만들었다. 또한 바로 그 중간허브에 해당하는 기지국이 바로 카라반 사라이였다.

아미르 티무르는 자신의 국가가 신생약소국임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백성들의 구성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국가 운영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지도자의 리더십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아미르 티무르는 리더십을 힘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이해하였다. 양탄자는 유목민들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거주민들에게 필수 생활용품이었다. 하나의 실은 존재의 가치도 없으며 너무도 약해 쉽게 끊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실들을 엮어서 양탄자를 만들게 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양탄자에는 무늬가 들어간다. 하나의 실이 가지는 색깔은 의미가 없지만 다양한 색깔의 실이 어우러져 문양을 만들면 하나의 예술이 된다. 아미르 티무르는 백성들을 실로 보았으며, 국가를 완성된 하나의 양탄자로 보았다. 그는 다민족국가의 특성을 잘살필려고 노력했으며, 페르시아의 학문, 투르크인의 제철기술, 몽골인의 군사기술, 실크로드의 상술이라는 여러개의 실을 엮어서 새로운 힘을 가공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민족국가의 지도자는 자신이 속한 민족에 우선

순위를 두는 민족주의를 단행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이 방법은 내부의 불만을 증폭시켜 주류민족의 세력이 약화되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곤 한다. 반대로 다민족의 자치를 허용하는 개방적이고 평등한 정책은 국가의 힘을 배로 증가시킨다. 로마제국과 미국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아미르 티무르는 아랍제국의 몰락이 아랍 단일민족주의에 있다고 판단했으며, 몽골제국의 멸망, 역시 몽골인 중심의 민족주의에 있다고 인식했다. 아미르 티무르의 리더십은 창조 리더십은 아니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신만이 만드는 행위이며, 그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응용하여 활용하였다. 윌리엄 더건⁶⁾은 “인류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전혀 새로운 ‘유’를 만들어낸 경우는 결코 없다. 이미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지켜보고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아미르 티무르는 자신이 즐겨하던 체스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체스판에는 어느 누구도 소외를 당하거나 버림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각각의 말은 자신의 역할이 있으며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팀워크를 중요시한다. 아미르 티무르시대에 여성들 역시 소외받지 않았다. 당시에 투르크계 이슬람 여성들은 베일을 쓰지 않았고 말을 타고 다녔으며 성지순례같은 원정에도 남자들과 동등하게 활동하였다. 아미르 티무르 시대에 여성들은 자신의 개인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저명한 남자의 부인은 자신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었다.

서양에서는 절름발이 티무르라는 의미를 가지는 태멀레인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인 아미르 티무르는 참으로 우리에게 낯선 인물인가 같다. 사마르칸트를 방문해서 그의 관이 있는 구르 에미르를 방문했는데 지하에 있는 실제 무덤은 방문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스탈린에 있었다. 1941년 스탈린의 명령을 받은 고고학자들이 그의 관을 열자마자 히틀러의 독일군대가 독소불가침조약을 깨고 침공하였고 다시 그의 명령으로 아미르 티무르의 관을 닫자 소련군대가 승리를 했다는 비화가 있다고 한다. 이후 어느 누구도 아미르 티무르의 관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스탈린이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무서운 게 없는 잔인한 독재자라고 후대 역사적 평가를 받은 스탈린이 500여 년 전에 죽은 정복자의 관으로 자신과 그의 국가의 운명을 맡겼다는 이야기는 묘한 웃음을 짓게 만든다.

6) William Duggan, 『위대한 전략가의 조건』의 저자